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9.1.13~2019.2.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랑가라 대학교는 바로 근처에 랑가라 skytrain역이 있고, 버스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학교는 신캠퍼스보다 더 작은 규모이고 모두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등하곳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도시 자체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학교에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학교 내에 스타벅스, 서브웨이, 팀홀튼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전반적인 시설도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Spring program에 참여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뿐이었기 때문에 분반은 따로 하지 않고 저희 학교 학생 15명이 모두 한 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교재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프린트물을 바인더에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한 선생님하고만 수업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쉬운 주제로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터라 수업이 전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주 수업 방법이 그룹 토alking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서로 의견 나누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지만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다 저희 학교 학생이라서 새로운 영어 표현을 습득하며 대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진부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reflection journal 쓰기, activity 하면서 간단한 조사하고 프린트물 채우기, 짧은 글 읽어오기 등 많지 않고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컬링, 그랜빌아일랜드, 캐필라노 브릿지 등 여러 곳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 컬링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스포츠 액티비티가 컬링밖에 없고, 또 하루뿐이라 아쉬웠지만 색다른 경험을 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컬링 배우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보통 최저 3도~최고 10도였습니다. 한국보다 덜 추운건 맞지만 우기라서 약간 습하기 때문에 쌀쌀합니다. 추위를 보통으로 타는 편인데 롱패딩 안 가져가고 외투 안에 얇은 옷 두 세 겹 껴입는 것으로 충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레인쿠버로 불리울 만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3주동안 비가 5일정도 밖에 안온 것 같아요. 5일중에서도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이틀뿐 이었고, 나머지는 저녁에 잠깐 오거나 하루종일 추적 추적 내리는 비였어요. 습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비올 때만큼 습하지 않았어요. 우산은 필수이지만 딱히 레인자켓을 따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입는 패딩이 대부분 생활방수기능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치안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인 것 같아요. 해가 진후에 Waterfront station과 Gastown 근처에는 홈리스와 마약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어서 이 부분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도 안전한 동네라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생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넓은 개인 방과 방 안에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따로 지켜야 할 규칙이 없다고 하셔서 애기들 잘 시간에는 조용히 하기, 밥 먹고 난 자리 치우기 등 정말 기본적인 예의들은 갖추되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다른 집은 규칙이 있었으니 호스트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집에서 간단하게 토스트한 빵이나 시리얼, 과일 등을 알아서 챙겨 먹고 등교했습니다. 홈맘께서 식자재들을 매번 충분히 채워주셔서 간식까지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점심은 카페테리아에서 사먹거나 홈맘이 싸주신 도시락 (샌드위치, 누들 등) 을 먹었습니다. 이곳은 전 날 저녁에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저녁은 다섯 번 정도 집에서 가족들과 먹고 그 외에는 친구들과 하교 후 여행하다가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밴쿠버만의 특색 음식이 그다지 없긴

	하지만 맛집이 정말 많아요!! 환전을 넉넉히 해가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크까지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Samurai 스시(체인점)와 그랜빌아일랜드에 있는 Stuart's Bakery의 타르트, The Sand Bar의 피쉬앤칩스 추천합니다!!!!>_< 학교에서 가는 여행지 다니다보면 현지인 인터뷰같은 간단한 과제 내주시는데 그 때 현지인한테 맛집 여쭙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곳들보다 더 확실하고 맛있었어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하나만 타고 15분정도 걸렸습니다. 통학이나 어디 놀러갈 때도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학교에서 3주간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에 통용 가능한 교통카드(티머니와 비슷함)를 나누어주니 교통비는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3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금액	110만원	25만원 남음
합계	대략 250만원	식비, 쇼핑비용 등 따로 계산해보지 않아서 자세히 적지는 못했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1. 화폐 익히기, 동전지갑 가져가기 학교에서 캐나다 화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서 눈에 익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를 쓰실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현금을 내다보면 동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쉽고 편하게 넣고 꺼낼 수 있는 작은 동전지갑이 있으면 편리할 듯합니다.
--

2. 호스트 패밀리 기념품

저는 스타벅스 훈민정음 시티컵, 손잡이 누르면 귀 세워지는 토끼모자, 여러 가지 한국 과자, 흙맘 드릴 간단한 화장품, 김 이렇게 사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미가 느껴진다고 시티컵을 매우 좋아하셨고, 애기들이 7,8살 어린아이들이라서 토끼모자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이랑 오레오 오즈 씨리얼은 비추합니다. 도시락 김이 어느 집에도 다 있고, 대중화되어서 그런지 현지 마트에도 많이 팔아요.

3. 호스트 패밀리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하기

홈스테이 배정받으면 호스트 부모님 이메일을 미리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저는 출국하기 1~2주전에 메일을 주고받았고, 날씨, 집에서 지켜야 할 사항, 빨래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리 연락해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건입니다. 수건을 빌려주시는 여부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여쭙보세요.

4. 음식 관련

나는 한식이 그리워서 꼭 먹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다운타운에 맛있는 한식당이 여러 곳 있지만 매일 가서 사먹기에는 외국에 간 의미가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께 주식이 밥인지 밀가루인지 여쭙보고 밥을 보통 안 드시면 햇반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마트에 볶음김치 작은 팩으로 파니까 그거 사가시면 냄새도 덜 나고 보관도 편해서 한결 나을거예요!!! 하지만 짧은 기간인 만큼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념품

단풍국이라 여러 메이플 관련 기념품이 있지만 메이플 시럽은 팬케이크 먹을 때 빼고 딱히 먹지 않기 때문에 드럭스토어에서 작은 용량으로 한 두 개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 쿠키는 꼭 사세요!! 엄청 달지만 은근 중독되는 맛이에요^0^ 연어육포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생선이라 그런가 좀 비린 맛이 나서 많이 사온 거 후회중입니다. 연어와 같은 생선은 스시나 피쉬앤칩스로 현지에서 많이 먹고 오세요. (사무라이 스시 사시미 최고) 아이스 와인은 Liquor Store이나 밴쿠버 공항 면세점, 이 두 군데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와인을 잘 알지 못해서 면세점에서 직원분께 추천받아서 샀습니다.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품은 MAC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면세점에도 맥이 있으니 맘에 드는거 봐놨다가 면세점에서 사세요) 한국의 3분의 2 가격입니다. 또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데를 원래 쓰고 있다면 이것도 면세점에서 구매하세요. 한국보다 2~3만원은 더 쌉니다. 세포라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화폐 가치가 낮아서 좀 더 싼 것이라고 느껴질 뿐 택스 붙으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라면 그냥 지르세요!

길가다가 기념품 스토어에 캐나다 국기 안고있는 곰돌이 키링 등 귀여운 기념품 많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는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스스로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나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하고 영어로 대화를 한다면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스테이 가족과 시간이 날 때마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학교 친구들과도 인연이 닿아 같이 짧은 시내 투어나 쇼핑을 하는 등 여러 나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의 밴쿠버는 해가 5시면 지기 때문에 상점들도 8시면 문을 닫기 시작해 늦은 시간에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8시에 귀가하여 집에서 쉬었습니다. 휴식시간이 충분해서 매일 매일 돌아다닐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알차게 한 3주였습니다. 수업이 좀 더 개선된다면 망설임 없이 교환학생 또는 개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당장 가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 원래 직업을 해외에서 가질 생각이었는데 캐나다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astown의 Steam clock



Granville Island의 Public Market



Kitsilano Beach 노을이 정말 예뻐요



Stanley Park 자전거 대여해서 꼭!!!
자전거 타고 공원 한 바퀴 돌아보세요



Victoria, Vancouver Island 의
국회의사당 건물
빅토리아에서 겨울에는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아침 일찍 페리타서 움직이면
daytrip으로 충분했습니다.



Capilano Suspension Bridge